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에너지경제연구」 발간 1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자리하신 한국 환경경제학회 박완규 회장님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준현 원장님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정책적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200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에너지경제연구」는 에너지경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학술적 교류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임했던 인연으로, 「에너지경제연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가 지난 연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을 때, 그동안 에너지경제연구 발간에 기여해 온 전문가 및 자원경제학회 여러분들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자주공급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이용효율성 제고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국제에너지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 시장친화적인 가격체계의 확립과 장기 안정적인 수급 정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금년 초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믹스정책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인식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경제연구」 발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포럼의 주제를 현재 에너지정책 분야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 가격체계'와 '장기 에너지믹스 정책'로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믹스

점점반을 구성하여 에너지정책의 장기방향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시각에서 동 이슈를 조망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와 토론으로 그 막중한 정책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정부가 결정해야 할 장기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착안사항과 검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